

## **NORDWESTH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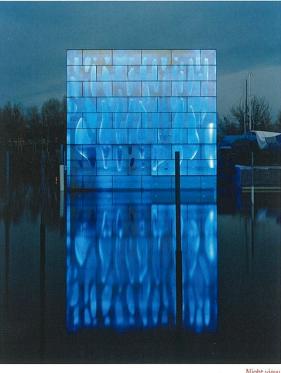
Design\_Baumschlager Eberle Architects Project architect\_Christoph von Oefele Structural engineer Mader+Flatz Facade Glas Marte GmbH Client Hafen Rohner GmbH und CoKG **Location** Fussach, Austria **Built area** 180 m<sup>2</sup> **Completion** 2008 **Finishing materials** Concrete, Sheets of glass Photographer\_Eduard Hueber / Arch Photo, Inc. Editor\_Lee Eunjung

The construction of the port in Fussach is an undertaking that disdains any picturesque posturing. The clear geometrical structures contrast starkly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Since the year 2000 the port building has 'hovered' over its surroundings, giving the owner, Maria Rohner, the overall view she needs. In response to the concrete tube devised for the head of the marina, Baumschlager Eberle have installed a cube as the new meeting point for the sailing community. Positioned right on the edge of the moorings, the building presents a striking interaction between the supporting concrete elements and the envelope of glazed panels that allow the contours of the building to shine through. The irregular structure of the concrete elements is set off against the regular rectangular shapes of the sheets of glass. The randomness of the glass decoration avoids too sharp a contrast between the core and the envelope, however. The purpose of these overlays is to allow light and shade to move around the inside. During the day the interior is transformed into a kaleidoscope of the surroundings, while the reflections of the surrounding water lend 'movement' to the outsides. At night-time the ceiling lighting, reinforced by the illumination in the support structure, provides an xray picture of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building. Its users enjoy the light-dependent spectrum consisting of the biomorphic forms of the concrete and the crystalline structures of the glass. The microscopically fine finishing gives the envelope of the building the texture which effects the transition to the construction. Text by Gert Walden

오스트리아의 푸사흐에 만들어진 항구는 그림 같은 어떠한 풍경도 비교를 불허한다. 투명한 기하학적 구조물이 자연 환경과 극도의 대비를 이룬다. 2000년 이후 이 항구 건물은 주변 경관 위로 '떠' 있으면서 소유주인 마리아 로너가 필요로 하는 전체적 조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바움스크레거 에베르레는 계류장 머리에 만든 콘크리트 튜브에 대한 화답으로서 정육면체를 설치하여 항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었다. 계류장 바로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하중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요소와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유리 패널 간에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건물 윤곽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 콘크리트 요소의 구조물이 띠는 일정하지 않은 모양이 유리 패널이 띠는 직사각형과 대비된다. 하지만 유리 장식이 임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구조물과 외피 간의 대비가 지나치게 예리해지지는 않는다. 이 외피의 목적은 빛과 그림자가 건물 내부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낮 동안 내부는 주변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만화경으로 변신하는 한편, 외부에서 볼 때에는 주변의 물이 반사되며 '움직이는' 모양으로 비친다. 밤이 되면 천장등이 하중 구조물의 조명과 함께 건물 내부 조직을 엑스레이처럼 비춰준다. 이용객은 콘크리트의 생물적 형태와 유리의 결정체적 구조가 빛과 어우러져 빚어내는 갖가지의 변화를 즐길 수 있다. 지극히 섬세한 마감 덕분에 건물 외피에서 건물로 이어지는, 전이 효과를 위한 질감이 만들어진다. 글 : 게르트 밝던



The entrance



Night view

